

광주 복구, 의료돌봄 통합지원 서비스 대상 수상



광주시 복구(구정장 문인)가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4년 지역복지 사업 평가'에서 '의료돌봄 통합지원' 분야 전국 1위를 달성해 대상을 수상했다.
복구는 돌봄 취약계층이 밀집된 영구 임대단지 등 대상으로 ▲지자체 ▲LH ▲종합복지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의료기관 등이 합

광주일보 사회부 김다인 기자, 환경기자상 수상

광주일보 사회부 김다인 기자가 '광주환경운동연합 제1회 환경기자상'을 수상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3일 광주시 동구 레스토랑에서 열린 '2024 광주환경운동연합 후원의 밤' 행사에서 환경기자상 시상식을 진행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의 환경기자상 수상은 1989년 창립 이래 35년만에 처음이다.
단체가 실시한 환경 기사 전수조사 결과 김 기자는 2년간 164건(2023년 68건, 2024년 96건)의 환경기사를 작성하며 최근 광주·전남에서 가장 많은 환경 관련 기사를 작성했다.
김 기자는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서류 5일 만에 검토하라고?', "'주민 안전은 뒷전'... '꿈수 공청회' 밀어붙이는 한수원', '한빛원전 수명연장 일방통행... 2차 수명연장 언급까지'



등 한빛원전 수명연장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뤘고 '보호종 줄고 교란생물 급증...월출산 국립공원 생태계 보호 시급', '수달·담비도 '로드킬'...국립공원 동물들은 불안하다', '무등산·지리산 국립공원서 새로운 습지 발견' 등 지역 국립공원 이슈를 깊이있게 취재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호남대 김영균 교수·고영일 처장
광주 시정발전 공로 시장 표창



고영일 행정처장은 광주시의 지속 가능성과 자연생태환경 보호 및 여가공간 이용방안 제시로 지역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하고 산학협력 인프라 활성화와 지(地)·산(産)·학(學)거버넌스 구축에 선도적인 역할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영균 교수는 광산구 외식기업에 대한 컨설팅과 어룡동주민자치회 조리교육프로그램, 선운중 교육 프로그램 등의 운영을 통해 소상공인들을 위한 활발한 지원활동을 펼쳤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도청소년미래재단, 사업운영보고대회 개최



전남도청소년미래재단(양미란 원장)이 지난 5일 '2024년 전라남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사업운영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운영보고대회는 각 센터에서 진행된 사업과 내년도 사업 방향성에 대해 공유하고 직원들의

양진석 해피니스컨트리클럽 회장, 인재육성기금 기탁

양진석 해피니스컨트리클럽 회장이 지난 5일 나주교육진흥재단에 지역인재육성기금 2000만원을 기탁했다.
양진석 회장은 지난해에도 인재육성기금 2000만원을 기탁한 바 있다.
양 회장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웃돕기 성금 기부 누적액도 9000만원을 넘기며 지역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이날 기탁식에는 운영태 나주시장이 참석해 재단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인재육성기금 사업을 소개하며 고마움을 전했다.
운영태 시장은 "단순 장학금뿐 아니라 대도시와 교육 격차 해소와 민선 8기 명품교육도시 실현을 위한 차별화된 정책을 통해 기부자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양진석 회장은 "소소하지만 나주의 미래인 학생의 학업과 진로 설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뿐 아니라 인재 육성에 큰 관심을 갖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이달의 '오피 광주세관인'에
양진영·노희준 주무관 선정



광주본부세관이 12월 '오피 광주세관인'으로 양진영 주무관과 노희준 주무관을 선정해 포상했다. 양진영 주무관과 노희준 주무관은 여행객이 수화물을 은닉한 메트암페타민 2.05kg을 X-ray 판독과 정밀 검사로 적발한 공을 인정받았다. 광주본부세관은 매월 탁월한 업무 성과를 창출하고 기관의 명예를 드높인 '오피 광주세관인'을 선정·포상하고 있다.
<광주본부세관 제공>

TV프로그램 9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4 columns: Channel (KBS1, KBS2, MBC, KBC/SBS), Program Name, Broadcast Time, and Description. Lists various news, entertainment, and educational programs.

EBS1

Table with 3 columns: Broadcast Time, Program Name, and Description. Lists various news, educational, and entertainment programs.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9일(음 11월9일 丁未)
36년생 일사직인 정제 현상으로 인해서 답답함을 면키 어렵겠다. 48년생 뻥히 다 알고 있으면서도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느니라. 60년생 말 못할 애로 사상이 있으니 살펴봐야겠다. 72년생 타산지석의 격이므로 남의 일에서 교훈을 얻을 수다. 84년생 제3의 요소가 개입되면서 복잡해지기만 한다. 96년생 양상에 구애 받을 필요는 없다. 행운의 숫자 : 02, 79
37년생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일을 도모하자. 49년생 끈질긴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는 단계이다. 61년생 대수롭지 않게 여겨왔던 것 속에 행운이 따른다. 73년생 여러 갈래로 세분되면서 점점 복잡해질 것이다. 85년생 있는 그대로를 보여줘야 오해가 생기지 않는다. 97년생 근본 원인이 터 정확히 찾아내야겠다. 행운의 숫자 : 32, 53
38년생 원칙과 순서에 따라서 무리가 없을 것이다. 50년생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될 수도 있으니 처신을 잘 해야겠다. 62년생 보고도 못 본 채하고 들어도 못 들은 체해야 한다. 74년생 점액하게 신경 써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 86년생 생체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이 합리적이다. 98년생 갑갑해왔던 것이 곧 해결되었다. 행운의 숫자 : 51, 70
39년생 지금 확실하게 해 뒤야 할 필요가 있다. 51년생 폭넓은 안목과 식견이 걸정을 부르리라. 63년생 요행이 따르는 하루가 될 수도 있느니라. 75년생 근본적인 것부터 해결하고 넘어가는 것이 맞다. 87년생 오늘의 지출은 미래에 대한 투자로 여겨도 된다. 99년생 부작용의 원인이 해소되어야 생산적으로 전환된다. 행운의 숫자 : 30, 63
40년생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마음은 결코 편치 않을 것이다. 52년생 지구력의 강도가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64년생 실용적이고 필수 불가결하다는 사실을 알라. 76년생 평도는 좋으나 여건이 조성되지 않는다. 88년생 안전에 관한 의식이 우선되어야 한다. 00년생 상대의 조언이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겠다. 행운의 숫자 : 29, 57
41년생 시세와 규약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살펴야 할 때가 되었느니라. 53년생 부실한 결과를 초래하게 하는 원인이 보인다. 65년생 한계 상황에 이르면서 새로운 국면을 열 것이다. 77년생 연쇄적인 효과를 보게 되면서 작용력이 커진다. 89년생 원상으로 복귀하게 되어 있다. 01년생 악담 끝은 없어도 대답 끝은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45, 60
42년생 균형을 잃는다면 부작용을 부른다. 54년생 기회란 자주 오지 않는 법이니 포착하는 데 민첩하라. 66년생 빨리 포기할수록 이익이니 모든 미련을 버려라. 78년생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실질적인 발전을 꾀할 수 있는 단계이다. 90년생 잘되어 있으니 무경만 열면 된다. 02년생 성과를 확실한다면 당장 실행해도 된다. 행운의 숫자 : 47, 66
43년생 소모적인 요소는 처음부터 완전히 배제하자. 55년생 생여 놓은 것 못지않게 끝까지 챙기는 것도 중요하다. 67년생 분위기 파악을 못한다면 우스운 꼴이 되리라. 79년생 문제점이 보이지는 않으니 마음 놓고 지내도 된다. 91년생 제안사가 지체되고 결과가 늦어진다. 03년생 실용적 관점에서 기존 살아야 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1, 83
44년생 결정적인 시기를 놓치면 쇠퇴하게 되리라. 56년생 속단은 금물이니 차분하게 생각할 일이다. 68년생 노고가 헛되지 않았음을 실감하게 될 것이니라. 80년생 의지가 확실하다면 능히 극복하고도 남음이 있도다. 92년생 작용에 따른 파장이 위상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04년생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행운의 숫자 : 06, 96
45년생 공든 탑이 무너질 수도 있으니 지금 내색할 필요는 없다. 57년생 상당한 재성이 들어오거나 영광스러운 일이 보인다. 69년생 일관된 소신이 있다면 목적 달성을 하리라. 81년생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무리이다. 93년생 병통할 여지가 없이 외곽에 놓여 있다. 05년생 공을 들여야 효과를 볼 수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03, 87
46년생 실익의 관점에서 판단하면 무리가 없겠다. 58년생 구체적이지 않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알라. 70년생 잃었던 것들을 회복할 수도 있는 양상이다. 82년생 흐르는 물은 절대로 썩지 않는 법이다. 94년생 순발력 있는 대처가 절실한 때이다. 06년생 수고로움을 회피하려 하지 말고 먼 미래를 보며 대응하자. 행운의 숫자 : 22, 89
35년생 구분 지어 놓지 않으면 혼란을 가중할 것이다. 47년생 머지않아 진면모가 드러날 것이니라. 59년생 격정스러워서 마음이 편치 않겠다. 71년생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불필요한 수고로움만 더 할 뿐이다. 83년생 무슨 일이든지 확실한 결과를 보게 되는 날이로다. 95년생 고목이 봄을 만나서 싹을 트일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01, 69